



1 마루이치코쿠부상점

1911년에 건축된 망루가 특징인 세토모노를 판매하는 상점. 세토덴키테쓰도의 개통을 계기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망루는 이누야마성의 망루를 본뜬 것이라고 전해지며 절대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목조 2층 건물이 들어서 있던 세토가와 강변에서도 유달리 눈에 띄는 존재였고 현재도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도자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오래된 민가 구메테이

근대의 세토 요업을 대표하는 가마 장인이었던 2대 가와모토 마스키치 가문의 별장. 자료 등으로부터 현존하는 주요 건물과 흙으로 만든 창고는 1908년에 건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메이지 후기(1868~1912)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의 건축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건물로 2004년부터는 “오래된 민가 구메테이”로 카페와 잡화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페 영업 시간 오전 11시~오후 5시(하절기 오후 6시)
정기 휴일 매주 화·수요일



3 무후안

근대 미술 공예가인 후지이 다쓰키치가 신진 작가 육성을 위해 현재의 도요타시에 만든 공동 공방. 1952년에 폐쇄한 후 공동 생활을 하고 있던 세토의 도예가들의 노력에 의해 다쓰키치의 아호인 “무후”에서 유래된 “무후안”이라는 명칭으로 세토시에 이축·기증되었습니다. 2001년에 복원·수리되어 현재는 갤러리 겸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관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휴관일 매주 수요일 **입장료** 무료

4 구야마시게상점(국가 등록 문화재)

창업은 1886~1887년경이라고 하며 그 후, 다이쇼시대(1912~1926), 쇼와시대(1926~1989)를 거쳐 도매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넓은 부지 내에는 1889년에 건축된 내외인사 접대의 무대가 된 “별채”와 “창고”·“구사무소”·“작은 신가옥” 외에 창고군 등 각 시대의 건물 9채가 남아 있습니다. 별채와 기와 토담의 돌담 등 매우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부는 행사 시에만 공개)



5 후카가와신사

나라시대(710년~794년)에 창건되었다고 하는 신사. 입구 정면의 본전 앞 건물에는 세토에서 만들어진 녹유 기와가 이어져 있습니다. 경내에는 세토 도자기업의 시조라고 전해지는 가토 시로 사에몬 가게마사(도시로)를 모신 스에히코사와 시지정 문화재인 오리베 등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로 작품으로 여겨지는 국가 중요문화재인 “도시이코마이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6 세토에이센교회 예배당

1900년에 기독교 개신교 장로교의 중심적인 건물로 건설되었습니다. 메이지시대(1868~1912)의 목조 단층 구조로 된 교회 건축이 보수·이축되지 않고 현존하는 예는 아이치현 내에서도 극히 드물며, 일본식·서양식이 절충된 트러스 구조와 스테인드 글라스 등이 매우 귀중한 건물입니다.



7 신세기 공예관

전시동·교류동·공방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 전시 및 연수생의 제작 풍경을 견학할 수 있고 그 외에 작가가 만든 잔에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룸과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전시동은 1914년에 세워진 후 현재 위치로 이축된 “구세토 도자기 진열관”을 재현한 것입니다.

개관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입장은 오후 5시 30분까지)
휴관일 매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 연말연시 연 6회 정도 관내 청소년·점검을 위해 정오까지 휴관
입장료 무료



8 세토구라 뮤지엄

뮤지엄 2층에는 20세기 세토 건물을 복원한 구역이 있습니다. 동력화에 의해 모터가 도입된 공장과 석탄가마 외에 세토모노 수송에 빼놓을 수 없었던 메이테쓰 세토선의 “세토덴”과 다이쇼시대부터 2001년까지 사용된 오와리세토역 구역사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개관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휴관일 월 1회정도 임시 휴관, 연말연시
입장료 일반 520엔, 고등학생·대학생·65세 이상 310엔, 중학생 이하·장애인수첩을 소지하고 계신 분·입장부는 무료 ※20명 이상 단체 할인됨

